

1945~1946년 대구지역 좌파세력의 국가건설운동과 ‘10월인민항쟁’*

허 중

- | | |
|-------------------------------|----------------------------------|
| 1. 머리말 | 2)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안 지지와
임시정부 수립운동 |
| 2. 좌파세력의 정당과 대중조직 | 3) 좌우연합과 대구공동위원회 활동 |
| 1) 정 당 | 4)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 |
| 2) 대중조직 | |
| 3. 좌파세력의 국가건설운동 | 4. 맺음말 |
| 1) 건국준비경북치안유지회와 인민
위원회의 활동 | |

1. 머리말

대구지역은 일제강점기에 노동자·농민 등 기층민중에 기초한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이, 해방 이후에는 자주적인 민족국가 수립운동과 반독재·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주·통일운동이, 현재는 강력한 시민운동과 지방분권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처럼 대구지역은 근현대 한국 사회운동의 전반적 흐름과 호흡을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의 사회운동이 전체 한국 사회운동의 단순한 지역적 표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시기는 해방정국이었다.

해방 후 우리 민족의 과제는 자주적 민족국가의 수립이었다. 해방정국 초기 권력의 공백 속에서 다양한 계급·계층과 그들을 대변하는 수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AL1002).

많은 정당과 대중조직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과 연합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미군정이 좌우분열을 조장하고 좌파세력을 탄압한 반면 친일파를 비롯한 보수우익세력을 군정의 요직에 임명하고, 이들을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는 좌우세력이 분열되고 극단적인 대립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구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좌우협력을 위해 노력했으며, 좌우연합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민족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해방정국의 대구지역 정치세력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일찍이 1946년 ‘10월인민항쟁’의 발발 원인과 배경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이후 인민위원회와 우파세력의 민족국가 건설방향에 대한 연구 성과가 나와 일정정도 해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지역과는 달리 좌우협력이 유지되었다는 고유한 특징을 밝히는 성과를 거두었다.¹⁾ 하지만 연구대상이 조직·사건·운동에 대한 계기적·현상적 서술에만 그쳐 그러한 사건과 운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 정치세력의 인식과 논리에 대한 해명은 미흡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연구자들이 좌우세력이 협력·연합했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했으나, 왜 대구에서 ‘10월인민항쟁’이 발발하고 좌우대립이 발생했는지를 해명하지 못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해방 직후부터 1946년 ‘10월인민항쟁’까지 정치세력의 한 축이었던 좌파세력의 국가건설운동의 인식과 활동을 규명해보고자 한다.²⁾ 이를 위해 먼저 좌파세력의 정당과 대중조직을

1) 정해구, 1987 『해방직후 대구지방 정치의 전개과정』 『역사비평』1, 역사비평사. 정해구, 1988 『10월인민항쟁연구』, 열음사. 정영진, 1990 『폭풍의 10월』, 한길사. 심지연, 1991 『대구10월항쟁연구』, 청계연구소. 안소영, 1993 『해방 직후 경북지역의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1, 여강. 허은, 1993 『경상북도지역 지방인민위원회의 역사적 배경과 활동』 『역사연구』3. 이영도, 2000 『1945~1948년 대구지방 우익세력의 국가건설운동과 그 성격』,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김일수, 2001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에 대한 대구지역 정치세력의 대응』 『사람』16.

2) 해방정국기 정치세력을 분류하는 데는 연구자간에 이견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1946년 3월에 결성되는 좌파세력의 연합조직인 민주주의민족전선에 참가한 정

살펴보고 이들의 조직을 결성하는 과정과 참여한 인물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 좌파세력의 국가건설에 대한 인식과 논리가 잘 드러나는 건국준비경북치안유지회와 인민위원회,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안 지지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운동, 대구공동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귀결점인 1946년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좌파세력의 정당과 대중조직

1) 정 당

(1) 조선공산당

대구지역에서 가장 먼저 정당을 결성한 정치세력은 사회주의세력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국내와 일본 등지에서 활동했던 사회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 경북도위원회(이하 조공 경북도당으로 줄임)와 조선공산당 대구시위원회(이하 조공 대구시당)를 조직하였다. 사회주의세력이 조공을 결성한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조공 당원의 증언과 1945년 9월 14일 조공 당원인 鄭文澤의 주도 아래 대구청년동맹이 결성되었다는 사실로 보아 8월말 늦어도 9월초에는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³⁾

이 무렵 조공 재건파와는 별도로 장안파도 해방 직후 조직을 결성하고 활동하였다. 8월 26일 李元式·郭洙範·李相吉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공산주의자클럽'을 결성하고 '赤旗'를 발행하였으며, 다음날 장안파 조공 대구시당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9월 장안파 대구시당은 서울의 장안파 조공이 재건파 조공에 흡수·통합된 것에 영향을 받아 해체하고, 9월 15일 대구의 중소상공업자, 소시민, 지식인이 중심이 된 사회민주동

당·대중조직·개인에 한정하여 다루었다.

3) 영남일보사, 1946 『慶北總鑑』(1946년판), 2쪽. 이일재, 1990 『해방직후 대구지방의 조공·전평활동과 '야산대』 『역사비평』9, 역사비평사.

맹을 결성하였다. 이후 사회민주당으로 개칭하여 활동하다가 12월 중순 해소하고 조공 대구시당으로 흡수되었다.⁴⁾ 이로써 12월에 대구지역 사회주의세력은 조공 대구시당으로 통일되었다.

조공 경북도당의 조직체계와 간부는 변동이 있었지만, 1946년 '10월 인민항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간부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張的宇였으며, 조직부책에 黃泰成, 정치부책 겸 총무부책에 李錫, 선전부책에 李相薰, 노동부책에 尹章赫, 농민부책에 金東煥, 여성부책에 鄭貴岳, 청년부책에 鄭文澤, 인민전선부책에 李在福, 재정부책에 李穆이었다.⁵⁾ 경북도당에는 이들 외에도 朴命苗·都在琪·李道赫·黃甫旭 등이 주요 인물로 활동하였다.

조공 경북도당의 주요 인물은 일제시기 조공 활동의 경력이 있었다. 장적우는 1927년 조공 경북위원회 책임비서, 이목은 조공 경북위원회 위원과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 황태성은 조공 경북위원회 위원과 고려공산청년회 위원을 지냈으며, 이상훈은 2차 조공사건으로 투옥된 경력이 있었다. 도재기는 조공 일본총국 교토(京都) 책임자, 고려공산청년회 간사이부(關西部) 책임자로, 박명줄과 장적우는 대구청년동맹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⁶⁾ 김동환은 1929년 대구적색교원동맹사건으로, 정문택은 鄭雲海의 아들로 대구상업학교에 재학 중이던 1937년 치안유지법위반으로 구속된 경력이 있었다.⁷⁾ 이도혁은 대구사범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된 茶草黨의 운동부장, 황보옥은 신간회 동경지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⁸⁾

4) 이원식, 1964 『잃어버린 나의 반세기 노트』.
 5) 『Taegu Riots, chart of organization』(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시민소요·여론조사 보고서』2, 52~53쪽). 이일재는 위원장 장적우, 조직부장 황태성, 노동부장 李圭亨, 선전부장 黃甫旭, 재정부장 李穆이었다고 회고하였다(이일재, 위의 글, 373~374쪽).
 6) 김준엽·김창순 공저, 1986 『한국공산주의운동사』3, 청계연구소, 298쪽. 허중, 2003 『1920년대 대구지역 사회주의세력의 대중운동』 『대구사학』71, 173~177쪽.
 7) 김정명, 1967 『朝鮮獨立運動』分冊 第1卷, 原書房, 350쪽. 『대구일보』 1960년 3월 1일.
 8)

조공 대구시당도 간부의 변동은 있었지만, '10월인민항쟁' 당시 지도부를 보면, 위원장은 金一植 이었으며, 선전부책에 李相吉, 조직부책에 張虎觀, 사업부책에 徐赫洙, 여성부책에 정귀악, 청년부책에 서영덕, 학생부책에 崔武學 등이었다.⁹⁾ 조공 대구시당은 산하에 동·서·북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세포조직을 두고 활동하였다. 동부 지역은 건직·제사공장이, 서부 지역은 화학·고무 공장이 많았으며, 북부 지역은 철도를 포함하여 섬유공장이 많았다. 따라서 이들 세 지역에서는 공장세포 건설에 조직사업을 치중하였다. 동부지역위원회 책임자는 李在榮, 서부지역위원회 책임자는 朴駙煥, 북부지역위원회 책임자는 朴洙石이었다.¹⁰⁾ 이들 외에도 孫基琛·高龍俊·林在華·朴福祚·金海生·신철수·이원식·우재린·곽수범·김정덕 등이 대구시당의 주요 인물이었다. 조공 대구시당은 산하에 공산청년동맹을 두고 청년을 대상으로 정치경제학과 사회주의이론 등을 교육하며 당원으로 양성하였다.¹¹⁾

조공 대구시당의 주요 인물도 경북도당과 마찬가지로 일제시기 사회주의계열에서 활동한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김일식·염필수·곽수범은 1931년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사건과 관련되어 투옥된 경력이 있었다.¹²⁾ 장호관은 1932년 조선공산주의자진주협의회의 노동위원회 결성 책임자, 이상길은 일본공산당 오사카(大阪)시위원회 조합부장과 일본노동조합

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독립운동사』9,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771쪽. 황보옥은 1928년 대구고보 동맹휴업사건에 관련된 黃甫善의 형이다(경상북도경찰부, 1934 『高等警察要史』, 156쪽).

9) 『Taegu Riots, chart of organization』. 이일재는 위원장 金一植, 선전부책 李相吉, 조직부책 廉弼守·張虎觀, 노동부책 徐赫洙, 청년부책 김정덕, 여성부책 우신실 등이었다고 증언하였다(이일재, 위의 글, 373~374쪽. 이일재 증언(2004년 1월 15일, 대구 자택)).

10) 『Taegu Riots, chart of organization』.

11) 유병화 증언(2003년 12월 12일, 대구 자택). 이일재 증언(2004년 1월 15일, 대구 자택).

12) 대구지방법원 형사부, 『昭和7年 刑公 第1958·1959·1960·1961號』. 김일식은 1916년에 광복단사건으로 투옥된 金鎭萬·金鎭瑀의 손자이며, 일제시기 사상단체 正午會와 대구노동공제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金永祐의 아들이다(『동아일보』 1926년 7월 21일).

전국협의회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투옥된 경력이 있었으며, 이재영도 반계동맹원으로 일본공산당 교토(京都)지방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¹³⁾ 손기채는 대구소년연맹·대구청년동맹의 간부를 지내고, 1932년 적색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준비조직에서, 임재화는 1930년대 조선공산당재건협의회 김천그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¹⁴⁾

조공은 당을 전면에 내세우고 활동하기보다는 당원들이 대중조직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조공 경북도당의 이규형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으로 줄임) 집행위원, 김동환은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이하 전농으로 줄임) 집행위원과 전농 경북도연맹 조직부장을 역임하였다. 이목은 민성일보의 사장, 황보옥은 민성일보의 주필로 활동하였다. 대구시당의 김일식과 서혁수, 곽수범은 전농 경북도연맹의 상임위원으로,¹⁵⁾ 염필수는 조선노동조합대구지방평의회(이하 대구노평으로 줄임)의 선전부장, 이상길과 이원식은 1945년 12월에 대구에서 창간된 『노동자신문』의 편집을 담당하였다.¹⁶⁾ 대구지역 사회주의세력은 노동·농민·청년·여성단체의 결성과 활동을 주도하였으며, 인민위원회, 민주주의민족전선 등의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공은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과 대중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과 사회운동으로 다른 정치세력에 비해 대중적 기반이 넓었지만, 조공의 조직적 기반으로 이어지지 않는 않았다. 이러한 조공의 고민은 1946년 5월에

13) 김정명, 1980 『朝鮮獨立運動』4, 原書房, 326~327, 374쪽. 김준엽·김창순 공저, 위의 책 5, 165쪽.
 14) 『중외일보』 1928년 2월 16일, 1929년 5월 9일. 이기하, 1976 『한국공산주의운동사』1, 국토통일원, 1402쪽. 강만길·성대경 엮음, 1996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241~242쪽.
 15)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결성대회 회의록』, 40~41쪽. 『영남일보』1945년 11월 29일. 『해방일보』 1945년 12월 12일.
 16) 『노동자신문』은 1945년 12월 20일에 창간되었으며, 대표는 都必永이었으며, 염필수와 서혁수 등이 편집을 담당하였다(영남일보사, 1946 『경북총감』(1946년판), 82쪽. 이원식, 위의 글). 이상길은 일제 말기에 대구일일신문 기자를 지낸 경력이 있었다(김진화, 1978 『일제하 대구의 언론연구』, 화대출판사, 158쪽).

작성된 조공 대구시당의 『決定書』에서 잘 드러난다. 조공 대구시당은 대중적 기반이 취약하고 노동자·농민이 주요 당원이 아니며, 당원들의 역량도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¹⁷⁾ 이러한 고민은 해방정국에서 조공이 좌우연합과 민족통일전선의 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 조선인민당

조선인민당은 미군정이 실시된 후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워 지자, 1945년 11월에 여운형을 비롯한 건국동맹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정당이었다. 대구에서도 군정이 실시된 후 '건국준비경북치안유지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해지자, 건국동맹원과 여운형을 지지했던 인물들이 조선인민당 대구지부를 결성하였다.¹⁸⁾ 대구지부는 중앙당이 결성된 후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 지방의 지부조직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결성되었다. 1945년 12월 20일 崔文植·이재복 등의 주도로 '조선인민당대구지부결성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준비위원회 결성대회는 조선인민당 중앙의 총무국장 李如星과 노동부장 李相燾가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준비위원으로 金準默·李在福·崔在瑩·白起萬·尹龍基·崔文植·洪承萬·金成坤·許龍壽·金相沂를 비롯한 16명이 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다.¹⁹⁾

조선인민당 대구지부는 1946년 2월 24일에 결성되었다. 대구지부는 전국의 주요 도시 가운데 부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결성된 것이었

17) 『Communitic Activity』(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CIC(방첩대) 보고서』1, 557쪽). 공산청년동맹원은 2개월 가량의 교육을 받고 당원이 되었다고 한다(유병화 증언).

18) 건국동맹 경북조직에는 김관제·채충식·최문식·이선장·이상훈·정운해·김성숙·李仁哉·李雲基·李相烈·都炳喆 등이 참여했으며, 이상훈과 정운해는 경북도대표 책임위원이었다. 이들 외에 경북 출신으로 李基錫·李如星·金世鎔·李相佰·許珪·黃泰成·朴文圭 등이 건국동맹원 이었다(李萬珪, 1947 『呂運亨先生鬭爭史』, 民主文化社, 168~179쪽. 김진화, 위의 책, 153~155쪽).

19) 『대구시보』1945년 12월 22일.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14(1946. 1. 4). 심지연, 1991 『인민당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7~11쪽.

다. 결성식은 조선인민당 중앙을 대표한 金午星·李基錫과 당원을 비롯한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결성식에서 당시 쟁점이 되고 있던 통일전선결성문제와 식량문제, 생산부흥, 파쇼배격문제 등이 토의되었다. 대구지부의 조직체제와 간부진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崔文植, 총무국 洪承萬·李世鎬·金鳳箕·李相武·金鍾修·金容尙·崔文植, 상무부 白?洪 외 4명, 정무부 李在福 외 7인, 재정부 金相沂 외 3인, 산업부 楊在韶 외 4인, 문화부 白起萬 외 4인, 조직부 白賢國 외 5인, 선전부 李源설 외 4인, 감사부 姜鎔 외 3인, 청년부 徐丙麒 외 3인, 조사연구부 李相祚 외 4인, 부녀부 : 金炳? 외 2인이었다. 결성 당시 대구지부의 당원 수는 1,898명이었으며, 1946년 5월에는 3천여 명으로 증가하였다.²⁰⁾

조선인민당 대구지부의 당원을 보면, 최문식과 이재복은 목사로 일제 강점기에 대구노동자소비조합을 결성하다가 투옥된 적이 있고, 백기만은 김천에서 금릉학원 교사로 재직하면서 신간회 김천지회 간사를 지내기도 했다.²¹⁾ 홍승만은 변호사, 김성근과 이상조는 자본가, 최재영·김용상·김해생은 문화인, 강용과 김봉기는 일제시기 신문지국을 운영한 경력이 있으며, 특히 강용은 사상단체인 정우회의 상무집행위원을 지낸 경력이 있었다.²²⁾ 이처럼 조선인민당 대구지부에 참여한 인물의 대

20) 『영남일보』1946년 2월 25, 26일. 『대구시보』1946년 2월 25일.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33(1946. 5. 1). 1946년 7월 현재 인민당 총 60개 지부 가운데 경북에서는 16개 지부가 결성되었다(민주주의민족전선 사무국, 1946 『조선해방연보』, 문우인서관, 143쪽).

21) 『조선일보』 1928년 2월 3일, 1930년 1월 2일. 『중의일보』 1930년 1월 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부, 『昭和8年 刑公 第2401號』, 慶北大觀編纂委員會, 1958 『慶北大觀』, 新生文化社, 597~598쪽.

22) 『동아일보』 1926년 11월 6일. 김진화, 위의 책, 95·150쪽. 대한변호사협회, 1979 『韓國辯護士史』, 250쪽. 김성근은 1931년 대구고보 4학년 때 항일동맹휴학운동자로 몰려 퇴학당한 경력이 있으며, 일제 말기에는 三共合資會社 사장을 지냈다(조선민보사, 1941 『경북연감』(1941년판), 255쪽. 경북중고 재경동창회, 1981 『동문인명사전』, 28쪽). 이상조는 엄필수와 처남 매부 사이로 일제 하에서 朝鮮民報 기자를 지냈으며, 해방 후 慶北特殊硝子工業株式會社 대표자였다(『영남일보』 1947년 1월 1일, 김진화, 위의 책, 109쪽).

다수는 전문직에 종사한 자들이었다. 조선인민당 대구지부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인물은 최문식과 이재복이었으며,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이 때문에 대구지부는 일반인들에게 조공이 지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었다.²³⁾

(3) 조선신민당과 조선민족혁명당

일제강점기 조선독립동맹에서 활동에서 인물의 주도 하에 결성된 조선신민당의 대구지부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은 1946년 6월에 시작되었다. 1946년 6월 27일 조선신민당 서울시특별위원회의 심성택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과 실행위원을 선출되고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확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당세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7월 중순까지 하부조직을 완료하고 7월 28일에 결성대회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결성대회를 앞두고 조선신민당 중앙 간부가 긴박한 정세관계로 참석이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이 무렵 대구에서 확산일로에 있던 콜레라의 방역관계로 대중 집회가 불허되어 대회가 연기되었다.²⁴⁾ 대구시본부는 공식적인 결성식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 활동하다가 이후 조선신민당 경북도위원회로 전환하였으며, 金正奎가 준비위원장을 맡으며 활동하였다. 경북도위원회는 9월 16일 조공 대구시위원회, 인민당 대구시지부와 합당을 결의하고 남로당으로 전환하였다.²⁵⁾

한편 김원봉이 주도하던 민족혁명당의 대구지부를 결성하려는 움직임도 6월에 시작되었다. 조선민족혁명당은 1946년 6월 하순에 金觀濟를

23) 1946년 6월 경북도 군정이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대구 시민의 83%가 조공이 인민당을 지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HQ, USAFIK, G-2 Period Report, No 268 (1946. 7. 2)). 이일재의 증언에 의하면 이재복과 최문식은 조공 프락션이었다고 한다(이일재 증언, 앞의 글, 364쪽)

24) 『대구시보』 1946년 7월 3일. 『남선경제신문』 1946년 7월 4일. 『영남일보』 1946년 7월 14, 28일.

25) 『대구시보』 1946년 9월 25일. 영남일보사, 위의 책(1946년판), 12쪽. 김정규의 일제강점기 행적은 분명하지 않지만, 대구노동공제회 위원을 지내고 사회주의 사상단체인 正午會에 참여했던 인물로 추정된다(허중, 위의 글, 162쪽).

준비위원장으로 하는 ‘민족혁명당대구시지부결성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김관제가 민족혁명당에 관계한 것은 1920년 의열단의 ‘밀양 및 진영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된 경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족혁명당의 주요 구성원을 보면, 총무 蔡忠植, 조직 郭東英, 선전 李元武, 재정 申相憲이 담당하였다.²⁶⁾ 채충식은 경북기자동맹 집행위원장, 신간회 칠곡지회 회장, 신간회 대구지회 서기장을 지냈으며, 곽동영은 기억당 사건으로 투옥된 바 있으며, 신상헌은 신문기자를 지냈다.²⁷⁾

준비위원회가 결성된 후 당원 획득을 비롯한 제반 활동에 들어갔다. 민족혁명당은 8월 3일 결성대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콜레라가 발생하여 방역관계로 도내 교통이 차단되어 무기연기 되었다. 민족혁명당은 초기에는 대구시지부결성준비위원회로 출발하였으나 결성식을 앞둔 시기에 ‘조선민족혁명당경북총지부’로 전환하였다.²⁸⁾

2) 대중조직

(1) 조선노동조합대구지방평의회

해방 직후 대구지역 노동자들은 공장관리운동을 전개하면서 점차 산업별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철도 분야는 9월 초 金會俊의 주도 하에 대구역 노동자를 중심으로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공회당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다른 분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10월 24일 대구지역 산업별 노조의 연합체인 노동조합대구협의회가 결성되었다.²⁹⁾

전국 각 지역별로 협의체 수준의 노동조합 연합조직이 결성되어 활

26) 『영남일보』 1946년 6월 25일.

27) 경상북도경찰부, 위의 책, 246쪽. 『중의일보』 1928년 1월 12일, 6월 30일. 大邱日日新聞社, 1942 『慶北年鑑』(1942년판), 292쪽.

28) 『영남일보』 1946년 7월 24일, 8월 2일. 『대구시보』 1946년 7월 24일. 영남일보, 위의 책(1946년판), 12쪽.

29) 영남일보사, 위의 책(1946년판), 5쪽. 유병화 증언(2003년 12월 12일, 대구 자택).

동하는 가운데, 9월 26일 전국의 산업별 노동자 대표들이 전평 결성을 위한 '준비대표자회'에서 장적우는 조사부 위원, 장호관은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³⁰⁾ 11월 전평 결성대회에 高龍俊·李在榮·尹章赫·徐赫洙·林鐘德·白相潤·金會俊 등이 대구지역 산업별 노조의 대의원 자격으로 참가하였으며, 李相洪·李圭亨·鄭文澤은 전평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³¹⁾

전평이 결성될 무렵 노동조합대구협의회 산하 노조는 전평 결성대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금속·철도를 비롯한 전체 15개 산별노조 중 11개 산업별 노조가 결성되었다고 보고되었다.³²⁾ 그러나 전평이 결성된 후인 12월 10일에 토건노조결성준비위원회가 결성대회를 가지고 12월 19일 결성된 사실로 보아 11개 산업별 노조 가운데 일부는 정식 결성되지 않았거나 준비위원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³⁾ 산업별 노조 위원장은 금속 손기채, 철도 金會俊, 교통운수 朴洙石·이영옥, 통신 윤일수, 전기 백형기, 섬유 李在榮, 출판 徐赫洙, 의무 李元式, 체신 韓尙洙 등이었다.³⁴⁾

전평이 결성된 후 노동조합대구협의회는 산업별 노조의 지방적 결합을 위하여 각 산업지대에 지방평의회를 조직할 수 있다는 전평의 조직 방침에 따라 12월 10일 종래 대구만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대구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경북 일원을 총망라한 대구지방평의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³⁵⁾ 위원장에는 윤장혁이 선출되었다.

30)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결성대회 회의록』 21쪽. 『해방일보』 1945년 10월 18일자. (안태정, 2002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현장에서 미래를, 79~84쪽)

31)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결성대회 회의록』, 40~41, 125~131쪽. 전평 결성대회에 참가한 대구지구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화학-趙承九·高龍俊·鄭弘錫·李相洪, 섬유-李在榮·林在華·尹章赫, 출판-徐赫洙·林鐘德·金昌禧, 식료-趙仁奎·朴明煥·金仁次, 철도-白相潤·金會俊, 토건-盧寬洪, 통신-金海生.

32)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결성대회 회의록』, 125~131쪽.

33) 『영남일보』 1945년 12월 14일. 『대구시보』 1945년 12월 21일.

34)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결성대회 회의록』. 『Taegu Riots, chart of organization』. 이일재·유병화 증언

2) 대구달성농민조합과 농민조합경북도연맹

대구지역의 농민운동단체로는 대구달성농민조합이 있었다. 대구달성농민조합은 1945년 10월에 결성된 대구달성연합농민조합협의회를 계승한 것이었다. 대구 단일의 농민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것은 일제강점기에 조선노동공제회 대구지회와 대구노동공제회가 달성군의 농민운동을 지도한 사실에서 보듯 두 지역이 인접해 있고, 대구에도 소규모의 농지가 있었지만, 달성군이 농업지대였기 때문이었다. 농민조합이 결성될 당시와 1946년 7월 현재 간부를 보면, 위원장은 尙戊祥, 부위원장은 郭洙範 이었으며, 서기부장(상무위원)은 金煥任, 선전부장은 趙銀石, 쟁의부장은 蔡炳周, 조직부장은 李麟魯·조은석, 사업부장은 徐永台였고, 徐永魯·蔡忠植·金善基는 고문으로 활동하였으며, 전체 조합원은 18,000명이었다.³⁵⁾

한편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이 결성되기 직전인 1945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농민조합경북도연맹 결성대회가 대구공회당에서 각 군대표자 약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결성대회에서 경북도연맹 위원장에 장하명이, 총무부장에 이상갑, 조직부장에 김동환, 선전부장에 신철수가 선출되었으며, 상무상·서영로·조은석·徐永台·김일식·서혁수·곽수범·李相烈은 상임위원으로 선출되었다.³⁷⁾ 경북도 내 농민조합의 결성 상황을 보면, 1부, 22군 중 21군에서 농민조합이, 256면 중 222면에서 지부조직이 결성되었으며, 경북도 농민조합원은 총 20여만 명이었다.³⁸⁾

35) 『해방일보』 1945년 12월 4일.

36) 『Farmer's Association』(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CIC(방첩대) 보고서』1, 573쪽). 『영남일보』1945년 10월 31일.

37) 『영남일보』 1945년 11월 28, 29일. 총무부장은 이상갑의 뒤를 이어 김동환이 담당했으며, 조직부장은 김동환의 뒤를 이어 신철수, 조은석이 담당하였다(『Farmer's Association』).

38) 1945년 12월 현재 농민 40만 명 중 29만 명, 1946년 7월 현재 23만 명이었다(전국농민조합총연맹 서기부, 1946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대회 회의록』, 39~40)

1945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대회에 李尙甲·김동환·장하명이 경북도연맹 대의원으로, 鄭時鳴·서영태·상무상이 대구부 대의원으로, 조은석·채병주·곽수범이 달성군 대의원으로 참가하였으며, 李弼雨·김동환·이상갑이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³⁹⁾ 농민조합은 소작료 3·7제 관철과 소작권 이동금지를 주된 목표로 활동하였으며,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부인반과 농촌 청년대의 조직에 주력하였다. 또한 유세대, 이동영화 상영 등을 통해 선전활동을 펼쳤으며, 강좌회, 독서회, 한글강습회 등을 열어 농촌문화의 향상과 문맹 퇴치를 위해 활동하였다.⁴⁰⁾

(3) 대구청년동맹과 민주청년동맹 대구시위원회

대구지역의 각 부문별 대중조직 가운데 가장 먼저 조직된 단체는 대구청년동맹이었다. 대구청년동맹은 1945년 9월 14일 정문택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강령은 '진정한 민주주의국가의 건설', '청년남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해방', '청년 대중의 혁명가적 훈련을 기함'이었다.⁴¹⁾ 대구청년동맹은 정치경제학·사회과학 등을 교육하는 문화강좌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계급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였으며,⁴²⁾ 회원은 약 8백 명이었다.⁴³⁾

11월 30일 대구공회당에서 각 군의 청년단체 대표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청년연합연맹결성대회를 열어 경북청년연합연맹을 결성하였다. 결성대회에서 활동노선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선전계몽운동을

쪽, 『Farmer's Association』).

39) 『해방일보』 1945년 12월 12일.

40) 『영남일보』 1945년 11월 28, 29일.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대회 회의록』, 40쪽. 『Farmer's Association』.

41) 『無窮花』(1945년 12월호), 48쪽. 영남일보사, 위의 책(1946년판), 2쪽.

42) 강좌회의 강사는 鄭時鳴을 비롯한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946년 3월 9일 미군정에 의해 폐쇄되었다(HQ, 6th, Periodic Report, No 144(1946. 3. 11), No 168(1946. 4. 4). 『Communist Schools and Educational Program』(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CIC(방첩대) 보고서』 1, 529쪽). 『영남일보』 1945년 10월 21일).

43)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33(1946. 5. 1).

위해 계몽반을 조직하고, 출판물 기관지 등을 적극적으로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청년으로서의 주체적 자각을 일깨우기 위해 강연회·독서회·창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다.⁴⁴⁾ 경북청년연합연맹은 조선청년총동맹이 결성된 후 조선청년총동맹경북도연맹으로 전환하였다.

1946년 4월 조선청년총동맹이 조공의 반파시즘 인민전선을 관철시키고 조공 산하의 공산청년동맹과의 이중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으로 줄임)으로 개편하자,⁴⁵⁾ 대구에서는 4월 12일 대구부내 청년단체 대표가 회의를 가지고 ‘민청 대구시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민청 대구시위원회의 결성대회는 4월 21일 대구극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국의 요청으로 연기되어 5월 19일에 결성식을 가졌다. 결성대회에서 朴相哲·李完求·鄭鍾表 등 5명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김일성·박헌영·여운형·김원봉·허헌·여운형·백남운 등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⁴⁶⁾ 민청 대구시위원회는 町단위의 지회를 설치하는 외에 산하에 탁구구락부를 설치하는 등 대중적 기반을 넓히기 위해 활동하였으며,⁴⁷⁾ 좌파세력의 전위대로서 활동하였다.

(4) 대구여자청년동맹과 부녀동맹 대구지부

대구지역에서 가장 먼저 조직된 좌파세력의 여성단체는 대구여자청년동맹이었다. 대구여자청년동맹이 결성된 시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대구청년동맹과 비슷한 시기에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 1945년 12월말에 전국 여성단체의 집결체인 전국부녀총동맹 결성대회에 李明德 등이 대의원으로 참가하였다.

44) 『영남일보』 1945년 12월 1일.

45) 김행선, 1996 『해방정국 청년운동과 민족통일전선운동연구』, 이화, 411쪽.

46) 『영남일보』 1946년 4월 21일. 『대구시보』 1946년 4월 15일, 5월 20일. 민청 경북도위원회는 5월 27일에 결성되었으며, 위원장은 김관제의 아들인 金東瓚이었다(『대구시보』 1946년 5월 28일. 영남일보사, 위의 책(1946년판), 11~12쪽).

47) 『영남일보』 1946년 5월 8일. 『대구시보』 1946년 6월 15일.

부녀총동맹 결성 이후 대구여자청년동맹도 부녀동맹으로 전환하였다. 1946년 1월 13일 부녀총동맹대구지부 결성대회가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결성대회에서 부녀총동맹대구지부는 '우리 여성들은 진보적 민주주의국가건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우리 여성들은 일반 여성의 계몽운동과 여성해방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 '우리 여성들은 단결을 굳게 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확립할 것'을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는 禹信實과 鄭貴岳이 선출되었으며, 총무부장에 裴英玉, 조직부장에 高胤女, 선전부장에 朴福祚, 문화부장에 金璟淳, 원호부장에 朴玉璟, 연락부장에 林英姬, 노동부장에 文英子가 선출되어 활동하였다.⁴⁸⁾

3. 좌파세력의 국가건설운동

1) 건국준비경북치안유지회와 인민위원회의 활동

대구지역 좌파세력은 8월 16일 건국동맹에 참여했던 인사와 예비구금으로 투옥되었던 인물들이 석방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건국동맹사건으로 7월 하순에 체포되었던 정운해·김관제 등 건국동맹 관련자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 좌파세력이 연찬회를 가지면서 같은 날 저녁 '건국준비위원회경북지부'를 결성하였다. 건국준비위원회경북지부는 17일 국민대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대표를 서울로 파견하였다.⁴⁹⁾

건국준비위원회경북지부가 결성될 무렵 우파세력의 徐相日·白南塚 등이 중심이 된 '경북치안유지회'가 결성되어 해방 직후 대구지역의 정

48) 『영남일보』 1946년 1월 15일. 부녀총동맹경상북도연맹은 3월 17일 결성되었으며, 위원장은 李春壽였다(『영남일보』 1946년 3월 17일. 영남일보사, 위의 책(1946년판), 12쪽).

49) 『대구시보』 1946년 8월 15일. 영남일보사, 위의 책(1946년판), 1쪽. 이원식, 위의 글.

치세력은 분열되어 활동을 전개하였다.⁵⁰⁾ 그러나 8월 22일 두 단체는 통합하여 ‘건국준비경북치안유지회(이하 건준으로 줄임)’를 결성하였다. 두 단체의 통합은 활동내용이 유사하여 따로 활동할 명분이 없었고, 이 때문에 정치세력이 분열되어 활동하는 모습에 대한 대구시민의 비판적인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心山 金昌淑의 중재노력을 무시할 수 없었으며,⁵¹⁾ 두 단체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일제 하에서 조선노동공제회 대구지회, 대구노동공제회, 신간회 대구지회 등에서 함께 활동한 배경도 작용하였다. 결성 당시 위원장은 김관제, 부위원장은 백남채였으며,⁵²⁾ 이후 백남채와 채충식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건준의 주요 부서와 간부는 총무부장 최문식, 보안부장 이재복, 청년부장 徐東辰, 외무부장 崔敬學, 재정부장 김성곤, 선전부장 장하명이었다.⁵³⁾ 이처럼 건준에는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이 함께 참여했으며, 대구지역 좌우세력의 첫 번째 합작이었다.

건준은 권력의 공백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힘을 쏟았다. 아울러 매일 3천명 이상 귀환하는 동포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수송하는 등의 구호 활동을 전개하였다.⁵⁴⁾ 특히 9월 29일 대구역에서 귀환동포를 실은 열차와 열차끼리 충돌하여 1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대구청년동맹 등과 함께 부상자를 구조하고 구호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⁵⁵⁾

건준은 해방 직후 시급한 문제를 대처해 나갔을 뿐 아니라 국가건설

50) 이원식, 위의 글.

51) 『金昌淑 自敘傳』(心山思想硏究會 編, 1981 『金昌淑』, 한길사, 259쪽).

52) 총무부장으로 서상일, 운동부장으로 이원식이 선출되었다(영남일보사, 위의 책(1946년판), 1쪽. 이원식, 위의 글). 미군보고서는 건준이 8월 26일 결성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HQ, 40th Infantry Division, G-2 Periodic Report, No 16(1945. 10. 11)).

53) HQ, 40th Infantry Division, G-2 Periodic Report, No 16(1945. 10. 11). 이외에 교육부·건설부 등의 부서가 있었다.

54) 『영남일보』 1945년 10월 23일.

55) 『민주중보』 1945년 9월 30일, 10월 1, 4일.

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도 펼쳤다. 건준은 자주적인 민족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제 식민지 잔재의 청산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육, 특히 초등 교원의 재교육을 선결과제로 보고, '경북교육협회'와 공동으로 도내 각 초등학교의 교원대표를 소집하여 조선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동양 역사와 교육 이념 등을 확립시키기 위해 '교원재교육강습회'를 열고자 하였다. 아울러 경제적 부흥을 위해 기계·화학·토건 등에 대한 기술 통계와 각 사업장을 조사하고, 종업원 총수, 기술현상, 생산 현황 등을 파악하는 활동을 펼쳤다.⁵⁶⁾ 이렇듯 건준은 국가건설을 위한 준비활동을 펼쳤다.

건준 위원장 김관제는 하지(John R. Hodge)에게 대구와 경북지역의 상황과 건준의 활동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 건준을 인정받고자 했으나,⁵⁷⁾ 미군이 대구를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하면서 건준의 활동은 타격을 받았다.⁵⁸⁾ 즉 군정지사 헨(Edwin A. Henn) 대령이 모든 정치조직은 관청에 등록하고 건준의 해산을 명령하였다.⁵⁹⁾ 건준의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좌파세력은 대구부내 36개 단체 대표와 각 町대표가 참여한 '대구시인민위원회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모체로 하여 10월 16일에 徐永魯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구시인민위원회를 결성하였다.⁶⁰⁾ 대

56) 『민주중보』 1945년 10월 4일.

57) 『Public Peace Committee Keungbuk Province Provisional Korea Commission of 1945』(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하지(John R. Hodge) 문서집』 3, 16~18쪽).

58) 미군이 대구를 점령하는 과정을 보면, 미군 시찰단이 9월 22일 칠곡군 동명에서 1박한 뒤, 23일 대구에 도착하여 경북도청 등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점검하였으며(『민주중보』 1945년 9월 24일), 10월 1일 미군 40사단 산하 제185보병연대가 대구에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했으며(『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Part I, chapter VI, pp. 19~20). 10월 29일 제99군정단이 대구에 진주함으로써 본격적인 군정이 실시되었다(Headquarters 99th Military Government Group, 『Historical Report for Kyongsang Pukto』(국사편찬위원회, 2001 『미군정기 군정단·군정중대 문서』 5, 355쪽).

59)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Part I, chapter VI, p. 52.

60) 『영남일보』 1945년 10월 14, 16일.

구시인민위원회는 ‘대구 시정은 대구시민의 손으로’라는 구호 아래 군정으로부터 시정을 찾고 자주독립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을 목적으로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 하의 總代制를 해소하고 町인민위원회를 조직코자 하였다. 또한 건국정신을 앙양하고 일제 식민지 잔재의 청산, 그리고 배급위생공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였으며, 물가안등을 억제할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⁶¹⁾

좌파세력은 경북도군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즉 미군정이 지방의 민의를 파악하고 민주적인 대의정부의 수립에 대비한다는 명목 아래 고문회를 설치하자, 정운해·김관제·李相武는 관선 도고문, 이상훈은 민선 도고문으로 활동하였으며, 金種耆는 관선 부고문, 김성곤·이상훈·신철수는 민선 부고문으로 활동하였다.⁶²⁾ 해방정국 초기 좌파세력은 우파세력과 연합하여 국가수립을 위한 활동을 펼쳤으며, 군정이 실시된 후에는 군정의 정책에 협력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2)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안 지지와 임시정부 수립운동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조선에 신탁통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좌파세력은 이를 반대하는 운동에 들어갔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안에 대한 대구 언론의 보도는 12월 29일자에 미·영·중·소 4개국 신탁통치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 동안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신탁통치실시가 전면이 부각되었으며, 서울과는 달리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는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

신탁통치문제에 대해 12월 29일 경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이상훈은

61) 『영남일보』 1945년 10월 29일, 11월 21일. 『대구시보』 1945년 10월 29일. 경북도 인민위원회는 10월 20일에 결성되었으며, 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 겸 내정부장 최문식, 산업부장 이선장, 보안부장 이재복, 재정부장 김성곤·채충식, 노동부장 정시명, 문교부장 이용수, 선전부장 황태성이었다(『無窮花』(1945년 12월호), 80쪽. 『대구시보』 1946년 8월 15일)

62) 정해구, 앞의 책, 46~47쪽.

신탁통치를 반대하며 반탁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⁶³⁾ 다음 날 경북도·대구시·달성군인민위원회, 조선농민조합경북도연맹, 대구노평, 조선청년총동맹경북도연맹, 대구여자청년동맹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신탁통치 반대를 결의하였다. 좌파세력이 신탁통치를 반대한 이유는 첫째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것을 결의한 카이로회담과 포츠담선언을 위반되는 것이며, 둘째 미소양군의 진주는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치안유지라는 선언에 배치되는 것이며, 셋째 약소민족을 노예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연합군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며, 넷째 우리 민족의 정치적 능력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좌파세력은 이날 참석한 단체의 명의로 작성한 결의문을 대구 시내에 살포하였다.⁶⁴⁾ 이는 이 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던 다른 지역의 좌파세력과는 달랐다.⁶⁵⁾

12월 30일 좌파세력은 신탁통치 실시를 반대한 우파세력과 대구공회당에서 회의를 가지고 '조선신탁관리반대공동투쟁위원회'(이하 반탁투위로 줄임)를 결성하였다. 반탁투위에는 경북도·대구시인민위원회, 인민당결성준비위원회, 대구노평을 비롯한 좌파세력의 정당 및 사회운동단체의 대다수가 참여하였으며, 우익세력을 포함하면 결성 당시 70여 개였으며, 이후 1백여 개의 단체로 늘어났다.⁶⁶⁾ 대표위원으로는 좌파세력의 裵昇煥과 우파세력의 崔成煥이 선출되었으며, 실무를 담당할 내무

63) 『대구시보』 1945년 12월 29일.

64) 『대구시보』 『영남일보』 1945년 12월 30일.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10(1945. 12. 30).

65) 다만 부산에서는 좌우세력이 신탁통치반대라는 입장이 일치하여 '신탁통치배격부산시위원회'를 결성하였으나, 조공이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후 와해되었다(허중, 1997 『해방 직후 경남지방의 민족국가 수립운동과 10월항쟁』 『경북사학』 20, 17쪽).

66) 『대구시보』 1946년 1월 1일. 『영남일보』 1946년 1월 9일. 공투위에 참여한 좌파세력의 단체는 달성농민조합, 조선농민조합경북도연맹, 조선청년총동맹경북총지부, 대구청년동맹, 학병동맹, 대구여자청년동맹, 경북문화건설연맹, 대구문화연구소, 十月映畫工場, 금속·화학·식품·토건·의무·전기·출판노조, 인민출판사, 협동조합준비위원회 등이었다.

부에 최문식·김성곤·金永達, 기획부에 崔一幸·황태성·張大熙·申鶴均, 실천부에 이재복·정문택·河在八, 선전부에 신철수·백기만·朴海用 등이 선출되었다.⁶⁷⁾ 반탁투위의 실무 진을 보면 좌파세력의 인물들이 더 많이 포진되고, 좌우세력이 단체단위로 참여한 것에 비해 조선공산당은 경북대표 만이 참여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탁투위가 결성됨으로써 대구에서는 진준에 이어 두 번째로 좌우세력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전국적으로 반탁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1946년 1월 1일 대구공회당에서는 수천여 명의 군중이 참여한 가운데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연설대회가 개최되었다. 1월 2일에는 반탁투위의 주최로 대구역전 광장에서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탁통치배격시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아울러 일반 가정은 신탁통치반대의 뜻으로 태극기를 게양하고, 극장·음식점 등은 휴업에 들어갔다. 또한 반탁투위는 테러행위를 엄중 경고하고,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의 파업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경북도 인민위원회도 반탁운동이 파괴가 아닌 건설적 방향으로 추진되고 산업부흥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침을 각 군에 하달하는 등 다른 지역과는 달리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반탁운동이 전개되었다.⁶⁸⁾ 아울러 반탁투위는 상무위원을 30명으로 증원하여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대구시보』정간 문제와 당시 시급한 문제였던 식량문제를 토의하는 등 반탁운동뿐 아니라 당시 대구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도 펼쳤다.⁶⁹⁾ 1월 2일 조공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한 후에도 대구의 좌파세력은 민족통일을 강조하며 우파세력과의 협력을 유지하였

67) 『대구시보』 1946년 1월 1일, 『영남일보』 1946년 1월 9일. 하재팔은 조선국군준비대경상북도본부의 부대장 겸 해군부장이었다(『영남일보』 1945년 10월 16일).

68) 『영남일보』 1946년 1월 1, 2, 3, 6일.

69) 『영남일보』 1946년 1월 6일.

다.⁷⁰⁾

그러나 서울에서 파견된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의 유세대가 대구에서 활동하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⁷¹⁾ 12일 임시정부 산하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의 유세대가 반탁투위 내 우파세력과 접촉하여 반탁위원회 조직문제를 협의한 후 경북지역으로 파견되어 위원회를 조직하고 반탁강연회를 열었다.⁷²⁾ 같은 날 반탁투위의 회원들이 좌파세력의 삼상회의 지지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대구 시내에 살포되고,⁷³⁾ 15일에는 '탁치반대조선국민총동원위원회'의 주도 하에 '신탁반대경북국민대회'를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임시정부를 즉시 승인해 줄 것과 삼상회의에 좌파세력이 대표를 파견했다고 비난하였으며, 일부 군중은 인민위원회 사무실을 습격하여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⁷⁴⁾ 좌우세력은 15일과 17일 두 차례 회의에서 '신탁'과 '후건'의 의미를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신탁이든 후건이든 연합국이 조선의 자주권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서울에서 개최중인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⁷⁵⁾

좌우세력의 연합은 1월 20일 반탁투위의 확대위원회 회의에서 조선 독립경북축진회(이하 축진회로 줄임)가 '탁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의 노선을 주장함으로써 무너졌다. 즉 축진회는 '나아갈 노선을 분명히 할

70) 『영남일보』 1946년 1월 9일.

71) 김일수는 좌파세력이 3일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지지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보았으나, 이 대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 보다는 삼상회의 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는 선전전에 치중했다는 이일재의 증언,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안을 지지하는 대규모 대회를 열었을 때 반탁투위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김일수, 앞의 글, 92쪽).

72) 『영남일보』 1946년 1월 13일.

7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28(1946. 1. 18).

7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27(1946. 1. 17). 『영남일보』 1946년 1월 15, 17일.

75) 『영남일보』 1946년 1월 19일.

것'과 '반탁을 반대하는 단체에 항의문을 보낼 것', '대표를 중앙으로 파견하여 통일을 강요할 것'을 건의하고, 노선은 임시정부 산하로 모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건의안이 부결되자, 촉진회는 반탁투위의 탈퇴를 선언하고 퇴장함으로써 좌우연합은 와해되었다.

촉진회가 탈퇴한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건의안이 부결되었다는 것이었지만, 사실 건의안은 좌파세력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다. 좌파세력은 건의안보다는 우파세력이 주장한 조선신탁관리반대공동투쟁위원회의 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파세력이 주장한 '임시정부 산하로 모일 것'은 당시 반탁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임시정부의 노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즉 좌파세력은 당시 임시정부의 반탁운동이 순수한 민족적 감정의 발로라기보다는 임시정부 추대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아울러 임시정부의 반탁운동이 반소·반공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노선을 따르자는 우파세력의 주장을 좌파세력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촉진회가 반탁투위를 탈퇴한 후 좌파세력은 반탁투위를 '민주주의민족전선대구시위원회'(이하 대구민전으로 줄임)로 전환하였다.⁷⁶⁾ 대구지역 좌우세력은 반탁 입장이 일치하여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좌파세력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안의 지지, 신탁이 아닌 '후견'으로 해석하고, 전면적인 활동은 아니었지만 반탁투위와는 별도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안을 지지하는 활동을 펼쳤다. 반면에 우파세력은 임시정부 지지, 반탁으로 해석하여 좌우세력간에 이견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서로의 불신감이 높아지고, 반탁문제를 둘러싼 좌우대립이 전국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점도 영향을 미쳐 좌우연합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76) 『영남일보』 1946년 1월 22일.

대구민전은 3월 27일에 결성대회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대구민전의 조직과 간부진은 의장 裴昇煥·李浩珍·韓興洙, 부의장 孫基採·申鶴均 외 4명, 사무국장 李英, 조직부장 朴亨淑, 기획부장 鄭夏澤, 선전부장 李東수, 문화부장 崔鎔, 재무부장 徐丙麟, 연락부장 裴國仁 등이었다.⁷⁷⁾ 대구민전은 미소공동위원회 지지와 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하였다.⁷⁸⁾ 5월에 미소공동위원회가 미소의 이견으로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되자, '미소공동위원회속개측구대구시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미소공동위원회 재개와 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운동을 펼쳤다.⁷⁹⁾

대구지역 좌파세력들이 미소공위속개운동과 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해방은 연합국 승리의 결과이며, 따라서 조선문제는 독립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미소 양국의 공고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였다. 미소 양국의 합의인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안은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임시정부를 원조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며, 결정안에 따른 미소공위의 성공이 조선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우파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38선 철폐는 누구나 지지하지만, 현실적으로 미소 양군의 군사상 필요한 것이며, 미소 양국이 조선에 민주주의 독립의 원조 임무를 완성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임시정부가 수립되면 38선이 철폐되므로 정부수립을 주장해야 되며, 민주주의임시정부수립은 미소공위가 하루빨리 속개됨으로써 만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결국 우파세력이 주장하는 자주독립과 38선 철폐는 단독정부수립의 음모라고 비판하였다.⁸⁰⁾

좌파세력은 국가건설운동과 더불어 대구지역 현안문제의 해결에도

77) 『영남일보』 1946년 3월 30일. 민주주의민족전선경북도위원회는 3월 5일에 결성되었다(『대구시보』 1946년 3월 6일).

78) 『대구시보』 1946년 1월 25일. 『영남일보』 1946년 1월 26일.

79) 『대구시보』 1946년 5월 26일.

80) 『영남경제신문』 『대구시보』 1946년 5월 25일. 『영남일보』 1946년 5월 15일.

적극적이었다. 3월 11일 민전과 인민위원회 등 좌파세력은 식량사정을 조사하고 쌀 수집가격·운반·배급 등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식량대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4월 초에는 식량대책연구위원회를 확대 강화시킨 식량대책위원회를 조직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경거망동’을 삼가고 군정의 식량수집에 적극 협력하도록 당부하였다.⁸¹⁾ 이 무렵 좌파세력이 군정과의 마찰이 없지는 않았지만, 루즈벨트 전 미국대통령의 1주기 추도식을 거행하고 민청대구시위원회가 군정의 요청으로 예정된 결성식을 연기하는 등 군정에 협력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⁸²⁾

3) 좌우연합과 대구공동위원회 활동

대구지역 좌파세력이 민주주의임시정부수립 운동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경북도군정이 제안한 ‘대구공동위원회’에 좌파세력이 참여함으로써 좌파세력의 활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대구공동위원회는 경북도군정 지사의 승인아래 공보과의 주관으로 좌파세력의 조공파 인민당, 우파세력의 한국민주당과 한국독립당의 대표가 참여하여 식량문제 등 당면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항구적인 민간문화종교단체로 발전시킨다는 구상 아래 제안된 기구였다.⁸³⁾

대구공동위원회에 대해 기존의 연구는 단순히 경북도군정의 주선으로 마련된 좌우협력의 사례라고 보았지만, 이 당시 미군정의 정책이 반영되어 있었다. 1946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미군정은 안정된 지배연합을 만들기 위해 보다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던 정치세력을 지배연합에 포괄하는 한편 좌파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국내

81) 김일수, 앞의 글, 104쪽.

82) 『영남일보』 1946년 4월 13, 21일.

83) 『대구시보』 1946년 6월 20일. 『남선경제신문』 1946년 6월 20일, 7월 4일.

정치세력의 좌우합작운동을 이용하고 있었다. 대구공동위원회는 안정적 지배연합의 구축과 함께 좌파세력을 분열시키고, 조공 내부를 분열시켜 좌익세력의 약화를 시키려는 이중적인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⁸⁴⁾ 즉 경북도군정이 '대중에게 과격정당들이 거짓말을 하며 자가당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과격정당을 되받아치도록 하는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드러나듯 조공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다.⁸⁵⁾ 또한 '서로 대립되는 정당이 정부문제를 결합하는 시험'이며,⁸⁶⁾ 정치적 통일의 실패를 대구 시민과 조선인에게 보여주고,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다른 모든 지역에 적용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해체될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⁸⁷⁾ 결국 경북도군정의 대구공동위원회 제안은 좌파세력이 미군정의 의도대로 움직일 경우 미군정의 지배연합으로 끌어들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좌파세력을 약화시키고 대중과 분리시키겠다는 이중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

대구공동위원회는 식량문제를 비롯한 당시 경북도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고자 한 의도도 있었다. 즉 식량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였지만, 당시 대구를 비롯한 경북지역에서는 식량이 부족하여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대구에서는 식량배급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콜레라가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도로가 차단되어 식량부족이 심화되면서 미군정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즉 미군정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하곡수집령을 공포한 직후였다는 점에서 하곡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치세력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⁸⁸⁾ 미군정이 좌우세력이 참여하는

84) 박태균, 1991 『1945-1946년 미군정의 정치세력 재편계획과 남한 정치구도의 변화』 『한국사연구』 74, 151~156쪽.

85) Col. Elmer Cook, 『Report of Investigation : Disturbance at Taegu 1946』.

8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275(1946. 7. 11).

8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262(1946. 6. 25).

88) Col. Elmer Cook, 『Report of Investigation : Disturbance at Taegu 1946』

기구를 유일하게 대구에서 추진한 배경에는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미군정이 좌파세력을 탄압하고, 좌우세력의 대립이 날카로웠던 상황과는 달리 대구지역의 좌우세력이 군정에 협력하고 좌우세력의 연합도 이루어졌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공 대구시당은 경북도군정의 대구공동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응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시 조공 대구시당은 좌우연합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중앙 및 지방동지 연석간담회에서 황태성은 조공이 대중을 지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중간파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족통일전선의 확대 강화를 주장하였다.⁸⁹⁾ 아울러 조공 대구시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대중적 기반이 넓었지만, 1946년 5월에 작성된 '결정서'에서 보듯 우파세력이 치안 및 관공서의 주요 직책을 장악한 상황에서 좌파의 대중적 기반이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⁹⁰⁾ 조공 대구시당은 대구공동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사회문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활동할 것이지만, 대구공동위원회가 항구적 조직으로 전환할 때 문화·종교·경제단체뿐 아니라 노동조합·농민조합 등 사회운동단체의 참여를 조건으로 참가할 것을 밝혔다. 대구공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손기채는 문화·민생문제의 실천에서 정치 관련부분은 토의하고, 그 외 정치문제도 토의할 것도 목적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여 참석자들이 전원 동의하였다.⁹¹⁾

대구공동위원회는 6월 28일 첫 회의에서 의장단과 집행위원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조공 대표로는 이상훈·신철수·황태

89) 『중앙 및 지방동지 연석간담회 회의록』(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3 『조선공산당문건자료집』, 147쪽).

90) 『Communitic Activity』(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CIC(방첩대) 보고서』 1, 555~559쪽). 당시 미군은 대구 좌파세력이 타협을 통해 보다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 평화공세로써 우파세력과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268(1946. 7. 2)).

91) 『영남일보』 『남선경제신문』 1946년 6월 29일.

성·손기채·이선장, 인민당 대표로는 최문식·이재복·백현국·김상기·홍승만이 참가하였으며, 이상훈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⁹²⁾ 대구공동위원회는 먼저 당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7월 4일에는 미국독립기념행사를 거행하였다. 아울러 해방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8·15해방기념 행사도 대한독립촉성경북국민회와 연합으로 개최하였다.⁹³⁾

대구공동위원회가 가장 시급하게 다룬 의제는 식량문제였다. 7월 1일 1천여 명의 시민이 식량배급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식량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자, 대구공동위원회는 식량문제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 악덕 상인이 매점매석한 쌀을 적발하고, 타 도에서 도입한 식량을 배급해 줄 것을 경북도군정에 건의하였다.⁹⁴⁾ 아울러 미군정의 하곡수집계획을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도시의 기아를 막을 수 있다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⁹⁵⁾ 그 방안으로 하곡수집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대구공동위원회 성명서 3호를 발표하고, 황태성과 한국독립당의 李英植은 유세대로 경북도군정 공보과장과 함께 경북 각 지역에 파견되어 하곡수집을 독려하였다.⁹⁶⁾

그러나 대구공동위원회의 입장과는 달리 경북 곳곳에서는 하곡수집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 경북도군정은 하곡수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산과 가축을 압류하는 등의 가혹한 수단을 동원하였으며, 이 때문에 농민들은 가재도구를 팔거나 하곡을 사서 할당량을

92) 한국민주당의 대표는 白南圭·金兌熙·呂圭鎭·李源萬·金在權, 한국독립당의 대표는 金訓采·孔元相·林尙助·金燾元·全榮玉 이었으며, 서기는 경북도군정 공보과장 朴寅世였다(『대구시보』 1946년 6월 29, 30일). 『남선경제신문』은 한국민주당 대표 가운데 여규진 대신 嚴成文으로 나와 있다(『남선경제신문』 1946년 6월 28일).

93) 『대구시보』 1946년 6월 29일, 7월 19일. 『남선경제신문』 1946년 7월 5일.

94) 『남선경제신문』 1946년 7월 6일.

9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289(1946. 7. 27).

96) 『대구시보』 1946년 7월 10일. 『남선경제신문』 1946년 7월 26일.

채우는 일까지 있었다.⁹⁷⁾ 결국 대구공동위원회의 독려와 군정의 강제적인 수집으로 경북은 각 도 가운데 하곡수집이 가장 많았다.⁹⁸⁾ 좌파세력이 군정에 협력하자 조공 중앙은 군정에 협력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⁹⁹⁾

대구공동위원회는 연구기획기관으로서의 각 전문 사항 및 구체적 실시방법을 심사하고 연구·기획하기 위한 민생·문화·산업경제의 세 부문의 전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¹⁰⁰⁾ 여기에 좌파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볼 때 대구공동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대구공동위원회의 활발한 활동 속에 9월 30일 존속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9월 13일 대구공동위원회에 참여한 각 정당의 대표들은 항구적 조직으로 전환할 토의하였다. 24일 회의에서 대구공동위원회가 민생문제 등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12월 31일까지 현 조직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1947년부터 항구적 조직체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후 이에 필요한 ‘定款草案起草委員’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당시 사회적 요구가 높았던 친일파·민족반역자의 처리문제를 위해 8명을 조사위원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¹⁰¹⁾

97) 정해구, 앞의 책, 92~98쪽.

98) 金宜均 경북도지사의 증언(Albert E. Brown, 『Riots and Disorders 6th Infantry Division Area, Korea, Oct 1~10, 1946』(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시민소요·여론조사보고서』 1, 239쪽). 경북도군정 공보과장 히치코크는 경북의 하곡수집이 높았던 이유는 좌파세력이 도내 전역으로 파견되어 농민들에게 하곡수집계획의 협조를 부탁하는 등 대구공동위원회의 노력 때문이라고 밝혔다(Col. Elmer Cook, 『Report of Investigation : Disturbance at Taegu 1946』).

99) Col. Elmer Cook, 『Report of Investigation : Disturbance at Taegu 1946』.

100) 각 위원회의 위원과 책임위원은 다음과 같다. 민생문제대책위원회-황태성(책임위원)·呂圭鎭(책임위원)·이원만·白南富·손인식·金愚宗·이선장·李吉榮·백기호·趙銅錫·金喜敬, 문화문제대책위원회-백기만(책임위원)·都景堦(책임위원)·金三道·金龍東·車英二·文莊寅·李鍾東·신철수·손기채·朴賢緒·尹福鎭·李相모, 산업경제대책위원회-엄성문(책임위원)·박명출(책임위원)·김태희·朴碩元·權淵龜·朴宅光·千在奇·金東煥·윤장혁·양재소·申春吉·김상기 었다(『남선경제신문』 1946년 7월 12, 14일).

대구공동위원회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펼쳐지자, 미군정청의 관심이 높아졌다. 미군정청 공보부 정치교육과의 번스(Arthur C. Bunce)가 파견되어 비공식적 토의를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 대구공동위원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항구적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관 제정의 단계로 접어들자, 미군정 장관 러취(Archer L. Lerch)는 공보부 정치분석과장인 헨센을 대구로 파견하였으며, 9월 24일에 열린 대구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였다.¹⁰²⁾

한편 좌파세력은 대구공동위원회의 활동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 때문에 군정·우파세력과 대립하기도 하였다. 7월과 8월 세 차례에 걸쳐 식량배급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여 경찰과 충돌하고 관련자들이 체포되기도 하였다.¹⁰³⁾ 대구전매국 노동자의 8·15기념 직장기념식에서 벌어진 문제를 빌미로 사측이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를 항의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현장을 경찰이 급습하여 노동자를 구타하고 관련자를 체포하였다.¹⁰⁴⁾ 또한 북한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을 남한에도 실시하기를 요구하는 선전활동을 펼치고,¹⁰⁵⁾ 나아가 미군정의 실정을 비난하며 군정의 철폐, 반동분자의 축출, 인민위원회로 정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좌파세력의 활동에 대해 미군과 경찰은 조공 대구시당·인민당 대구지부·대구노평·대구민전 등 좌파세력 단체의 사무실과 간부 집을 급습하여 문서와 서류를 압수하였다.¹⁰⁶⁾ 9월 12일 경찰이 민전사무실에서

101) 『남선경제신문』 1946년 9월 15일. 조사위원은 공산당-金一植·李善長, 인민당-高鳳煥·楊在韶, 한국민주당-李源萬·金在權, 한국독립당-金訓采·孔元相 이었다(『영남일보』 1946년 9월 26일).

102) 『남선경제신문』 1946년 8월 4일. 『영남일보』 1946년 9월 26일.

103) 정해구, 앞의 책, 96~97쪽.

104) 이와 관련하여 대구노평 위원장 윤장혁과 화학노조 위원장 고용준이 기소되어 윤장혁은 무죄, 고용준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전국노동자신문』 1946년 8월 30일. 『대구시보』 1946년 9월 20일).

105) Col. Elmer Cook, 『Report of Investigation : Disturbance at Taegu 1946』.

106) HQ, 6th, G-2 Periodic Report, No 317(1946. 8. 31), No 322(1946. 9. 5). 『

열리고 있던 조공 대구시위의 회합 현장을 경찰과 미군이 급습하여 참석자를 체포하는 일이 있었다.¹⁰⁷⁾ 경북도군정은 조공의 활동을 억제시키기 위해 조공과 다른 정당명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¹⁰⁸⁾

한편 서울에서 조공·인민당·신민당의 합당문제가 논의되자, 대구에서도 3당은 9월부터 '3당합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당문제를 협의하여 이견없이 합당이 결정되었다. 이는 조공 내에 반박현영세력인 '대회파'가 없었으며, 조공 프락션이 주도하고 있던 인민당 대구지부도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9월 23일 3당의 대표들이 모여 합당을 결의하고 28일 남조선노동당 대구시위원회의 결성대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¹⁰⁹⁾

좌파세력과 우파세력의 관계도 원활하지는 않았다. 좌우세력이 공동으로 거행한 8·15기념행사에 대해 좌파세력은 우파세력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즉 기념행사의 대대적인 성공을 위해 좌파세력은 좌파 조직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였으나, 우파세력은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행사진행 도중 상호비방이 문제가 되어 갈등을 빚기도 하였으며,¹¹⁰⁾ 좌파세력은 정치선전물을 배포하여 우익세력과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구공동위원회의 활동에서 보듯 현상적으로 경북도군정, 좌우세력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실상은 언제든지 계기가 주어지면 와해될 수 있는 불안한 '동거'에 지나지 않았다.

Communist Activity」(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CIC(방첩대) 보고서』 1, 576~579쪽). 『대구시보』 1946년 8월 31일, 9월 1일.

107) 『대구시보』 『영남일보』 1946년 9월 13일.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333(1946. 9. 19). HQ, 6th, G-2 Periodic Report, No 333(1946. 9. 16).

108) Col. Elmer Cook, 『Report of Investigation : Disturbance at Taegu 1946』, 『영남일보』 1946년 9월 19일. 『남선경제신문』 1946년 9월 29일.

109) 『영남일보』 1946년 9월 24일. 『대구시보』 1946년 9월 25일.

110) 『영남일보』 1946년 8월 29, 30, 31일.

4)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

대구에서 좌파세력의 협력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발발한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은 좌우연합을 통한 국가수립의 마지막 남은 가능성을 알아갔다. 9월 23일 부산지역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대구역 철도노동자 1천여 명도 같은 날 오후 3시경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파업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대구지역의 파업은 26일을 기해 거의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되었다. 대구지역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중앙철도종업원쟁의본부'는 9월 25일 일사불란한 행동을 요구하는 격전문을 보냈으며, '대구철도쟁의단'은 파업에 관한 일체의 교섭권과 계약권을 전평에 일임하였다. 27일 노동자들은 대구노평 위원장 윤장혁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조선총파업대구시투쟁위원회'(이하 파업투위로 줄임)를 조직하였다.¹¹¹⁾ 아울러 각 공장마다 파업투위 지부를 두고 방화 와 도난을 우려하여 자위대를 편성하여 대비하였다. 파업투위에는 시민의 위문단이 와서 위문하였고, 위문품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파업투위를 결성한 27일에 파업투위 대표는 해론(Gordon J. F. Heron) 경북지사의 요청으로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9월총파업은 일급제 반대·임금 인상·쌀배급 증대·해고 반대 등에서 보듯 미군정의 식량·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기반으로 한 측면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된 후 좌파세력에 대한 미군정의 대대적인 탄압에 맞서기 위한 조공의 전술과 관련이 있는 정치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하지만 파업이 합법적으로 전개되고 경찰도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업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¹¹²⁾

그러나 미군정이 9월 30일 철도파업단 본부가 있는 용산기관구를 습

111) 정해구, 앞의 책, 102~106쪽.

112) 영남일보사, 1947 『경북총감』(1947년판), 28~30쪽.

격하여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사태는 악화되었다. 대구에서도 9월 30일에 경찰이 그 동안 문제삼지 않았던 파업투위의 간판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다. 하지만 파업투위가 거부함으로써 좌파세력과 군정의 관계는 악화되고, 좌파세력은 투쟁을 확대시켰다.¹¹³⁾ 10월 1일 부녀동맹의 주도로 부녀자와 아이가 중심이 된 1천여 명의 군중들이 대구부청에서 식량배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공포를 발사하자, 군중들은 부청의 현관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였다.¹¹⁴⁾ 오후 1시경에는 대구역 앞에 노동자들이 집결하여 다시 파업투위의 간판을 대구노평 본부에 게시하였다. 오후 2시경 경찰이 출동하여 파업투위 간부와 군중해산문제를 협의하였으며, 협의도중 權寧錫 경북경찰청장이 무장경찰관을 이끌고 출동하여 군중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군중들은 경찰의 철수를 요구하며 해산을 거부하였다.¹¹⁵⁾

파업투위와 경찰은 협상 끝에 군중의 해산과 경찰의 철수를 합의하여 경찰은 대구역 근처로 철수하였다. 이후 군중들 사이에 작은 소요로 대구경찰서 수사주임을 비롯한 경찰이 출동하자 군중들이 경찰을 공격하였다. 다시 무장경찰이 출동하여 군중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발포하였다. 10월인민항쟁의 기폭제가 된 경찰의 발포에 대한 진술은 엇갈린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에 따르면 군중들이 경찰에게 모여들어 경찰이 머리 위로 발포했지만, 군중들이 계속 모여들자 경찰이 군중을 향해 발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반면에 경찰은 운수경찰관과 운수노조간에 충돌이 일어나 대구경찰서 수사주임이 경찰을 대동하고 현장에 출동하자, 군중들이 경찰을 폭행하여 경찰이 발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113) 『대구시보』 1946년 10월 12일. 대검찰청 수사국, 1965 『좌익사건실록』 1, 248쪽.

114) 『한국 대구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에 관한 조사보고서』(심지연, 앞의 책, 163~177쪽).

115) 『한성일보』 1946년 10월 8일.

의 발포로 1명이 사망하고 수 명이 부상당하였다. 이후 대다수의 군중은 해산하고 미군과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였다.¹¹⁶⁾

경찰의 발포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후 좌파세력은 10월 1일 밤과 2일 새벽 사이에 대구 전역에서 소규모 모임과 집회를 개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2일 투쟁계획은 조공 대구시당 산하에 설치된 '특별대책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대책위원회는 조공 대구시당 위원장 김일식이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위임했다는 발언을 볼 때 파업투쟁과 '10월인민항쟁'에서 최고기구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¹¹⁷⁾ 좌파세력의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10월 2일 활동을 볼 때 좌파세력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좌파세력은 2일 대구경찰서, 대구역, 대구부청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군중시위를 전개하였다.

먼저 대구경찰서의 시위는 민주청년동맹 소속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발포에 따르면, 10월 1일과 2일 밤사이에는 손기채의 주도 하에 대구의과대학에서 각 학교의 좌파 교원들과 학생들이 모임을 가지고, 각 학교 교원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관공서의 파괴와 경찰서 접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¹¹⁸⁾ 2일 대구의과대학·대구사범대학·대구농과대학 학생들은 대구사범대학에서 연합집회를 가지

116) Col. Elmer Cook, 'Report of Investigation : Disturbance at Taegu Korea', 『한성일보』 1946년 10월 8일. 『한국 대구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에 관한 조사보고서』(십지연, 앞의 책, 165쪽). HQ. 99th M. G. Gp, 『Unit Journal』(국사편찬위원회, 2001 『美軍政期 軍政團·軍政中隊 文書』 5, 391쪽). 미군보고서에는 이날 경찰의 발포로 신원미상 1명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으며, 대구노평부위원장 이상익은 10월 3일 대구병원에서 사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Report of Taegu Situation(1946. 10. 26)』(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시민소요·여론조사 보고서』 1, 357쪽).

117) Col. Elmer Cook, 'Report of Investigation : Disturbance at Taegu Korea', 『民聲日報』 1947년 6월 21, 28일.

118) Col. Elmer Cook, 'Report of Investigation : Disturbance at Taegu Korea', 『한성일보』 1946년 10월 8일. 손기채가 대구의과대학병원에서 방첩대 요원에게 체포된 사실을 볼 때 경찰의 발포는 사실로 추정된다(HQ. 99th M. G. Gp, 『Unit Journal』).

고 경찰의 발포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메고 대구경찰서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¹¹⁹⁾ 대구경찰서에는 이미 오전 9시 15분경부터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으며,¹²⁰⁾ 오전 10시경 3개 대학 학생들과 중등 학생 수천명이 대구경찰서를 포위하고 경찰의 발포중지와 무장해제, 체포된 사람의 석방 등을 요구하였다.¹²¹⁾

군중들이 대구경찰서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군정 경찰청장 프레지아(John Charles. Plezia) 소령이 권영석 경찰청장과 李成玉 대구경찰서장에게 군중을 해산시키도록 명령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군중해산에 소극적 이었고, 11시 45분경 경찰이 무기와 제복을 버리고 군정막사로 피신하였다. 이어 12시경 프레지아 소령도 경찰서를 떠나자 군중들이 경찰서를 점거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유치장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석방하였다. 오후 1시 30분경 미군이 출동하여 경찰서와 일부 무기를 탈환하였다.¹²²⁾

미군이 대구경찰서를 탈환한 후 이재복과 남아있던 학생들은 미군측에 체포된 좌파인사를 석방하면 모든 무기를 반납하고 군중을 해산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날 발포한 명령자를 밝히고 파업 해결을 위해 노동대책위원회의 조직을 프레지아에게 요구하였다. 프레지아의 주선으로 도청에서 열린 헤론 지사와의 협상에서 헤론 지사가 군중이 해산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도부는 군중을 해산시켰다. 이어 가진 협상에서 이재복과 최문식은 위의 요구 외에 식량배급, 사망한 사람의 장례식을 단체들이 거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도청으로 군중들이 모여들자, 헤론은 지도부가 군중을 통제

119) 『Report of Taegu Situation(1946. 10. 26)』. 영남일보사, 위의 책(1947년판), 30쪽.
 120) 『한국 대구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121) 『Report of Investigation of Disorders Occurring at Taegu Conducted by Major General Albert E. Brown October 4th, 1946』(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시민소요·여론조사 보고서』 1, 193~201쪽). 『대구시보』 1946년 10월 17일.
 122) 『한국 대구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요구 수용을 거부하고 전술부대의 출동을 요청하여 회의는 결렬되었다.¹²³⁾

한편 대구역 인근에서는 노동자와 경찰이 충돌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대구역 시위는 노동자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아 파업투위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10시 30분경 대구역 근처에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으며, 11시경 역 앞에서 군중이 경찰을 공격하였다. 이를 계기로 군중과 경찰이 충돌하여 18~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대구부청에서도 군중들이 시위를 벌였다. 대구부청의 시위는 전날에 이어 부녀동맹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10시 30분경 무장한 일부 군중과 대다수가 여성인 3백여 명이 시위를 벌였으나, 11시경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다.¹²⁴⁾ 이날 대구에서 38명이 피살되었으며, 이 가운데 21명이 경찰이었다. 대구가 무정부상태에 빠지자 미군은 2일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10월 3일에는 경북도인민위원회 대표들이 대구시장과 경찰서장을 방문하여 '농민으로부터 수집한 보리는 즉시 되돌려줄 것', '미곡수집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며, '모든 한국인 관리는 사임하지 않으면 피살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날 오후 2시 군정지사를 비롯한 군정의 고위 관리와 손기채·최문식을 비롯한 노조 간부, 의대교수 대표 등이 사태 수습을 위한 회의를 가졌으며, 군정의 요구에 따라 최문식과 손기채는 시민들에게 사태 수습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

123) 『Report of Investigation of Disorders Occurring at Taegu Conducted by Major General Albert E. Brown October 4th, 1946』, HQ. 99th M. G. Gp, 『Unit Journal』, 『대구시보』 1946년 10월 19일. 재판에서 최문식은 경찰의 무장 해제, 총파업 이후 피검된 사람의 무조건 즉시 석방, 파업 이후의 시국대책협의기관의 구성을 허락할 것, 발포한 경관의 책임자를 밝힐 것 등 이었다고 밝혔다(『민성일보』 1947년 6월 28일).

124) Col. Elmer Cook, 『Report of Investigation : Disturbance at Taegu Korea』. 『한국 대구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박현영은 여성노동자가 경찰의 발포로 사망하자, 노동자와 경찰이 충돌했다고 한다(박현영, 『투쟁일지 : 인민항쟁의 피어린 기록』(심지연, 위의 책, 98쪽).

다.¹²⁵⁾ 10월 5일에 사태 수습을 위해 대구공동위원회의 회의가 소집되었으나, 좌파세력이 참석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우파세력도 폭동기간 동안 좌파세력의 행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좌파세력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대구공동위원회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히치코크는 대구공동위원회를 해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대구공동위원회는 더 이상 열리지 못하였다. 파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은 복귀하여 8일부터 일부 열차의 운행이 재개되고, 11일에 전원이 출근하여 정상 운영되었으며, 일부 대구우편국원도 출근하여 파업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¹²⁶⁾

10월인민항쟁은 미군정이 친일 경찰을 비롯한 친일파·민족반역자를 군정의 요직에 기용하고, 경제정책의 실패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무엇보다 자주적인 민족국가 수립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미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너무 컸다. 먼저 좌파세력의 주요 인물이 체포되고 조직이 와해되었다. 손기채·최문식·윤장혁·김일식·박일환·이목·이선장·배승환 등 좌파세력의 주요 인물들이 체포되었으며,¹²⁷⁾ 장적우·황태성·이재복 등은 피신하였다.¹²⁸⁾ 이 때문에 조직이 와해되고 활동은 위축되었으며, 1947년 2월에야 조직을 정비하여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¹²⁹⁾

125) 『한국 대구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HQ. 99th M. G. Gp, 『Unit Journal』. 『Report of Investigation of Disorders Occurring at Taegu Conducted by Major General Albert E. Brown October 4th, 1946』.
 126) Col. Elmer Cook, 『Report of Investigation : Disturbance at Taegu 1946』. 『대구시보』 1946년 10월 12일.
 127) 『남선경제신문』, 『영남일보』 1947년 2월 6일.
 128) 조공 경북도당책 장적우는 체포를 피해 피신해 있다가 얼마 후 월북하였으며(張志連 증언(장적우의 딸, 2004년 2월 18일, 경북 군위군 소보면 자택), 세간의 관심을 모은 羅允出도 체포되었으나 혐의가 없어 석방되었다(『영남일보』 1947년 4월 4일).
 129) 남로당경북도위원회는 1947년 3월 16일 결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이상훈, 부위원장은 김정규, 검사위원장은 채충식 이었다(『민성일보』 1947년 3월 17, 21일).

10월인민항쟁으로 나타난 보다 큰 문제는 좌우세력이 분열되고 테러와 암살이 수반된 날카로운 대립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미·소가 남북을 분할 점령하고, 양국이 점령한 지역 이상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분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좌우연합, 민족통일전선의 결성이었다. 따라서 대구지역에서의 좌우연합은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가능성이었지만 이 또한 10월인민항쟁으로 사라지고 극심한 좌우대립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정부수립까지 지속되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해방 직후부터 1946년 10월인민항쟁까지 대구지역 좌파세력의 조직과 국가건설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구지역의 좌파세력은 해방 직후 정당과 대중조직을 건설하여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좌파세력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펼쳤던 민족해방운동과 대중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회운동을 펼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좌파세력의 역량은 우파세력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었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좌파세력은 이러한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좌우연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대구지역 좌파세력은 미·소 양국이 남북을 분할 점령하고, 미국이 친일파·민족반역자를 비롯한 우파세력을 권력의 요직에 기용하는 상황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민족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소 양국의 협력과 좌우세력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으로 대구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좌우연합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징이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중앙의 입장과 지시에 따라 좌파세력의 활동방향이 결정되었지만, 대구지역의 좌파세

력은 일정 정도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안을 두고 좌우세력이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달았지만, 대구에서는 좌우협력이 지속될 수 있었다. 이후 서로의 입장 차이로 분열되었지만, 주요한 행사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였다. 이는 미군정이 대구공동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대구공동위원회는 한편으로 좌우연합의 성격과 다른 한편으로 좌파세력을 분열시키려는 이중적 성격의 기구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전국적으로 좌파세력이 탄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좌파세력의 미군정에 대한 협조적인 자세는 조선공산당 중앙의 비판과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미군정의 하곡수집에 대한 좌파세력의 협조는 당시 농민들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결국 대구지역 좌파세력도 전국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좌파세력은 9월총파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10월인민항쟁이 발발했던 것이다. 10월인민항쟁은 자주적인 민족국가수립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그 동안 미군정의 실정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었지만, 그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10월인민항쟁으로 좌파세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반면에 우파세력은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간에 조직을 결성하고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불안한 가운데서도 지속되었던 좌우연합이 무너지고 극단적인 대립으로 나타났다.

* 논문투고일자: 2004. 4. 20, 논문심사완료: 2004. 5. 3.

The Country Establishment Movement and 'October People's Strife' of the Left Wingers in Daegu in 1945~1946

Heo, Jong

[Abstract]

Just after the liberation, the left wingers in Daegu organized a political party and a mass structure and took the initiative in the political situation on the support from the mass. They thought most important is the cooperation between the U.S.A and the U.S.S.R and collaboration between the left and right forces at home for the establishment of autonomous, national country. With this recognition, unlike other regions, Daegu saw the left-right coalition just after the liberation. However the left wingers in Daegu couldn't be free of the atmosphere nationwide.

The September general strike [9월총파업] and October people's strife [10월인민항쟁] had a historical significance in terms of resistance against the misrule of military administration of U.S.A. when the prospect of establishing a autonomous national country was not clear. The left wing organization couldn't but get a blow and, above all things, the coalition demolished and an extreme antagonism appeared.

주제어: 대구, 해방, 좌파세력, 좌우합작, 9월총파업, 10월인민항쟁

Key words: Daegu, Liberation, Left wingers, the Left-Right coalition, September general strike, October people's strife